



2023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 시 | 한글서예 | 수 채 화 | 민 화
한문서예 | 고 전 | 한 국 화 | 인 두 화

| 전시기간 | 2023. 11. 28.(화) ~ 11. 30(목) (3일간)

| 전시장소 |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

| 후 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2023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	시	수	채	화
한문서예		한	국	화
한글서예		민		화
고	전	인	두	화

모시는 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계묘년 한해도 이제 카렌다 한 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또 한해를 마무리해가는 즈음에 우리 문화원에서는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한해동안의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꽃샘 추위속에서 무언가 새로운것에 도전한다는 설렘으로 시작하여 기대반 걱정반으로 정진해온 수강생들의 습작활동들이 지도 강사님들의 열정으로 놀라운 경지에 이르는 창작품들이 되어 여러분들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하 군수님과 오세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향토문화를 사랑하시는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은 군민 모두와 함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해가며 새로운 문화비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묘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도 군민들과 회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문 화 원 장
박 상 민

한시 교실



• 지도강사 : 이종우

• 수료자 : 김경일 김기송 김덕주 김무풍 김윤래 김인숙 김준호
 김형래 박문희 박상형 안병대 양동창 이상권 이성복
 최종학 추종삼 황광수 황재권

讚美襄陽南大川 (찬미양양남대천)

漢水于筒別有天	(한수우통별유천)	우통수에서 발원한 남대천은 별천지인데,
源泉混混飲麒先	(원천혼혼음기선)	많이 흐르는 원천 먼저 기린이 마셨다지.
芳林秀麗充眸內	(방림수려충모내)	수려한 방림은 눈동자 안에 가득하고,
怪石珍奇櫛谷邊	(괴석진기즐곡변)	진기한 괴석이 골짜기 주변에 즐비하다.
僻洞留雲飛老鶴	(벽동류운비노학)	구름 머무는 벽동에는 늙은 학이 날고,
碧潭垂釣戲翁仙	(벽담수조희옹선)	맑은 물에 드리운 벽담에선 늙은 신선이 노니네.
帆船悅樂棹歌快	(범선열락도가쾌)	범선에서 즐거워하는 뱃노래 경쾌한데,
鱣遡母川千歲傳	(연소모천천세전)	연어가 오르는 모천 오래오래 전하리다.



지도강사 又泉 李 鍾 富

雪裏寒梅 (설리한매)

寒梅雪裏朵籬東	(한매설리타리동)	눈 속의 한매가 울타리 동쪽에 피니,
雅潔妍芳忍北風	(아결연방인북풍)	아결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북풍을 견딘다.
玉骨鮮明香地力	(옥골선명향지력)	옥결이 선명하니 지력의 향기요,
冰魂麗艷色天功	(빙혼려염색천공)	빙혼이 곱고 예쁨은 천공의 빛이로다.
冬經翠竹同堪下	(동경취죽동감하)	겨울을 나는 대나무와 같이 견디며,
春待靑松共笑中	(춘대청송공소중)	봄을 기다리는 소나무와 함께 웃노라.
獨秀優閒君子見	(독수우한군자견)	홀로 빼어난 우아한 군자를 보면서,
諸人勝趣自然風	(제인승취자연풍)	못 사람들의 훌륭한 흥취가 절로 풍부하다.

(社)韓國漢詩協會襄陽支會長
南岡 梁東昌



讚 襄陽五色嶺

(찬 양양오색령)

天作鴻濛別洞天	(천작홍몽별동천)	천지자연의 원기로 이루어진 별세계의 선경,
襄陽五色地靈連	(양양오색지령연)	양양의 오색 령은 신령한 땅 기운이 연했네.
奇巖磅礴縈佳氣	(기암방박영가기)	충만한 기암에는 가기가 엉키었고,
絕壁崢嶸繞瑞烟	(절벽쟁영요서연)	가파른 절벽에는 서연이 드리웠네.
鳳翥峯巒千世外	(봉저봉만천세외)	봉황이 날던 봉만은 대천세계 밖이요,
馬馳嶺路百年前	(마치령로백년전)	꽃말로 달리던 영로는 백년전이다.
英名必至輿圖錄	(영명필지여도록)	꽃다운 이름 반드시 지도상에 기록하고,
享有歡榮萬姓緣	(향유환영만성연)	환희와 영화 누리는 만백성과 인연이다.



桂堂 金慶一

雪松 (설송)

歲寒半夜雪松辰	(세한반야설송진)	한겨울 추운 밤 솔 위에 눈이 내리니,
草木山河白賁眞	(초목산하백분진)	온 세상이 흰색으로 변했네.
積絮容姿仙界趣	(적서용자선계취)	솜처럼 쌓인 아름다운 모습은 신선 세계의 자태이고,
飛風玉屑俗情塵	(비풍옥설속정진)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눈꽃 송이는 속세의 티끌이라.
斯粧赤脚傷痍繞	(사장적각상이요)	눈으로 쌓인 붉은 다리는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감싸는 듯하고,
素化蒼髯面貌新	(소화창염면모신)	하얗게 변한 푸른 수염은 면도를 하기 위한 모습이구나.
重擔堪當流冷汗	(중담감당류냉한)	무거운 짐 견디니 눈이 녹아내리고,
溪邊柳眼俟陽春	(계변류안사양춘)	시냇가의 버들강아지는 따뜻한 봄을 기다린다.



牛步 金基松

避暑僻村 (피서벽촌)

盛夏炎天 訪僻村 (성하염천 방벽촌) 한여름 무더위에 벽촌을 찾아가니,
驕陽槐木 躁蟬喧 (교양괴목 조선현) 햇볕 뜨거운 괴목에 매미소리 요란하네.
江邊洗汗 情夫婦 (강변세한 정부부) 강가에서 세한 하는 부부는 정답고,
陰下圍碁 樂祖孫 (음하위기 낙조손) 그늘 아래 바둑 두는 조손은 즐거워하네.
消熱牧童 登栗里 (소열목동 등율리) 목동은 더위를 식히고자 밤나무골에 오르고,
尋涼遊客 入桃源 (심량유객 입도원) 유객은 서늘함을 찾고자 선경에 들었네.
清溪濯足 心身爽 (청계탁족 심신상) 청계에 발담구어 심신이 상쾌하니,
滿喫風懷 詠永言 (만끽풍회 영언언) 풍회를 만끽하고 詩歌를 읊으리라.



峴泉 金惠柱

秋色滿乾坤 (추색만건곤)

錦繡江山季節良	(금수강산계절량)	강산을 비단으로 수놓았으니 정말 아름다운 계절,
豐登廣野萬秋光	(풍등광야만추광)	넓은 들 풍년드니 누런 곡식 빛을 내네.
蘆花綻白森羅美	(노화탄백삼라미)	갈대꽃 흰머리 하여 혼드니 세상이 아름답고,
楓葉粧紅景物芳	(풍엽장홍경물방)	단풍잎 붉게 장식하니 모두 다 꽃답네.
砌下蛩聲霑雨露	(체하공성점우로)	뜰 밑 귀뚜라미 우는 소리 이슬비에 젖었고,
天涯雁蕈傲風霜	(천애안려오통상)	하늘가 기러기 떼 서리 바람타고 즐기네.
探看到處無非麗	(탐간도처무비려)	보는 곳마다 아름답지 않은 곳 없으니,
逸興津津四海昌	(일흥진진사해창)	아름다운 흥치 풍성하니 온 세상 창성하리라.



東林 金 茂 豊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원설악오색삭도건설)

絕勝襄陽秀大東	(절승양양수대동)	우리나라에서 빼어난 절승지 양양에,
徹天索道懇望同	(철천삭도간망동)	하늘에 사무치도록 삭도를 간절히 바란다.
靈山建設隨人海	(영산건설수인해)	영산에 건설하니 인해가 따르고,
祕境加工起國風	(비경가공기국풍)	비경에 가공하니 국풍이 일어난다.
官吏堂堂傾死力	(관리당당경사력)	관리는 당당하게 사력을 기울이고,
鄉民烈烈取成功	(향민열열취성공)	향민은 열렬하게 성공을 이루리다.
老齡障礙須期待	(노령장애수기대)	노령인 장애인 모름지기 기대하는 바이니
皆主名區美化隆	(개주명구미화릉)	모두 주인인 명구로 극진히 아름답게 꾸미자.



蒼波 金 允 來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원설악오색삭도건설)

雪嶽巍巍冠大東	(설악외외관대동)	드높은 설악산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인데,
吾曹索道一心同	(오조삭도일심동)	우리들은 삭도를 일심으로 동의하노라.
郡民宿願衝天勢	(군민숙원충천세)	국민의 숙원이 하늘 찌를 기세이고,
萬姓希求起國風	(만성희구기국풍)	백성이 희구함에 국풍이 일어나네.
環境親和傾總力	(환경친화경총력)	환경 친화에 모든 힘을 한 곳에 기울이고,
自然保護盡多功	(자연보호진다공)	자연보호에 많은 공을 다 쏟아야지.
順調本事能成就	(순조본사능성취)	순조롭게 본 공사가 능히 성취되면,
賴此襄陽永遠隆	(뢰차양양영원륭)	힘입은 양양은 오래도록 융성하리라.



撮朗 金俊鎬

産兒優先政策 (산아우선정책)

出産優先敍政年	(출산우선서정년)	출산을 우선으로 정책을 펴는 해가 되어,
家庭安定結婚連	(가정안정결혼연)	가정이 안정되면 결혼소식 이어 지겠지.
男丁就業場存活	(남정취업장존활)	청년들이 취업하는 마당이 있어 활성화 되고,
女性胞胎職保全	(여성포태직보전)	여성들의 임신은 직업이 보호 안전 되어야지.
人口增加民族富	(인구증가민족부)	인구가 증가함은 우리 민족의 부흥이요,
夫妻配合子孫賢	(부처배합자손현)	부처가 배합하면 어진 자손 태어 나네.
生兒宅內兒聲續	(생아택내아성속)	아이를 낳은 집 안에는 아이 웃음소리 계속되니.
鞠育衷心後世傳	(국육충심후세전)	국육하는 참된 마음 후세에 전해보세.



看山 金亨來

襄陽松蕈爭秋 (양양송심쟁추)

淅瀝秋聲遠近聞	(석력추성원근문)	쓸쓸한 가을 소리 원근에서 들리는데
西山接踵早晨分	(서산접종조신분)	이른 새벽에 서산으로 계속 왕래하는구나.
馨香散發松蕈顆	(형향산발송심과)	송이버섯에서는 향기가 산발하는데,
潔露凝生石耳紋	(결로응생석이문)	석이버섯에는 깨끗한 이슬 맺혔구나.
賞玩來賓風味興	(상완래빈풍미흥)	구경하는 내빈은 좋은 맛에 흥이 나고,
歡遊訪客臭芬醺	(환유방객취분훈)	환유하는 손님은 냄새와 향기로움에 취하네.
珍奇寶物襄陽擘	(진기보물양양벽)	양양에 으뜸인 희귀하고 기이한 보물을,
貴買持箱莞爾欣	(귀매지상완이흔)	귀히 산 상자 들고 빙그레 웃으며 기뻐한다.



士川 朴相亨

七夕有感 (칠석유감)

織女牽牛 何所鄉 (직녀견우 하소향) 직녀와 견우의 고향은 어디이더냐,
鵲橋一夜 愛星光 (작교일야 애성광) 오작교에서의 하룻밤은 별빛 사랑이었네.
月燈玉宇 搖明滅 (월등옥우 요명멸) 옥우의 달 등잔은 깜박거리며 흔들리고,
雲路銀河 展渺茫 (운로은하 전묘망) 은하수의 구름길은 아득하게 펼쳐지네.
天界別離 心氣亂 (천계별리 심기란) 천계에서의 이별에 심기가 어지럽고,
塵寰醺悵道風望 (진환초창 도풍망) 속세에서의 슬픔에 도풍을 바라노라.
泮宮七夕 行梧製 (반궁칠석 행오제) 성균관에서는 칠석에 오제를 행하였고,
上帝溫情 善德張 (상제온정 선덕장) 상제께서는 온정으로 선덕을 베푸시네.



芝香 李成福

願清淨山河 (원청정산하)

清淨山河故得生	(청정산하고득생)	옛적부터 청정 산하인데,
清淨山河故得生	(점증오염변형성)	오염 증가하여 변형을 이루었구나.
自然保護人倫道	(자연보호인륜도)	자연 보호함은 인륜의 도리요,
環境親和智德程	(환경친화지덕정)	환경을 친화함은 지덕의 한도라.
産業煤煙天體蓋	(산업매연천체개)	산업 매연은 천체를 덮었고,
農工廢水地川盈	(농공폐수지천영)	농공 폐수는 지천에 차 있다.
官民協助遵規範	(관민협조준규범)	관민이 협조하여 대책 세워 규범을 준수하면,
槿域蒼澄萬代榮	(근역창정만대영)	전국이 푸르고 맑아 자손만대 영화를 누리리라.



瑞潭 崔鍾學

萬化方暢 (만화방창)

萬物蘇生暢日春	(만물소생창일춘)	봄날이 화창하니 만물이 소생하고,
山川華麗四方新	(산천화려사방신)	산천이 화려하니 사방이 새롭구나.
鶯兒喚友誇奇巧	(앵아환우과기교)	피꼬리가 벗을 부르며 기교를 자랑하고,
燕子尋巢顯性眞	(연자심소현성진)	제비가 집을 찾으니 본성이 나타나네.
柳絮飛風溪谷逕	(류서비풍계곡경)	버들솜이 바람에 날리니 계곡이 오솔길이요,
蓮花浮水雨蛙隣	(연화부수우와린)	연꽃이 물에 뜨니 청개구리와 이웃이 되네.
蜂歌蝶舞斯佳節	(봉가접무사가절)	벌이 노래하고 나비 춤추는 이 좋은 절기에,
疆土三千錦繡伸	(강토삼천금수신)	삼천리 강토에 비단수가 펼쳐졌구나.



冠山 秋 鍾 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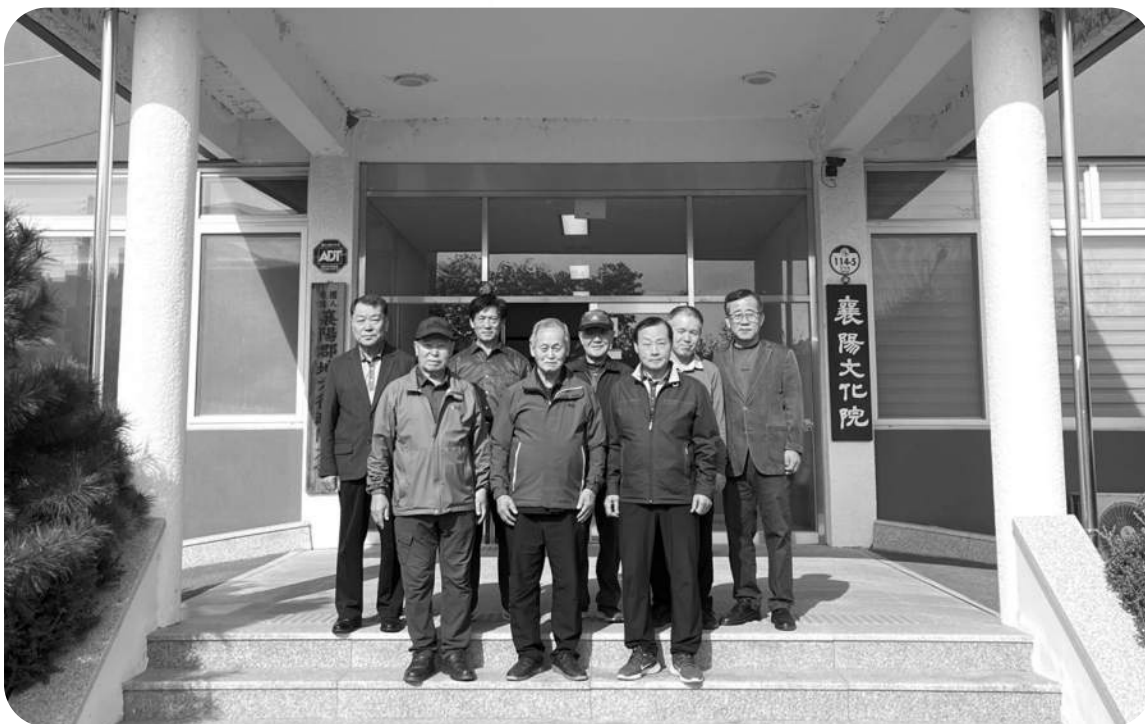
晩秋 (만추)

暴暑堪能已晩秋	(폭서감능이만추)	무술폭서 감당하니 이미 늦은 가을이라,
天和順適健民休	(천화순적건민휴)	천지화기 적응하는 건전국민 너그럽네.
黃雲四野忙機穫	(황운사야망기穫)	황운별판 사야에는 수기분주 수확인데,
白鷺千溪活氣遊	(백로천계활기유)	백로들은 천계마다 활기차게 노니누나.
霜菊美觀妝紫壟	(상국미관장자릉)	상사국화 미관으로 보라언덕 단장하고,
錦楓佳勝染紅州	(금풍가승염홍주)	금풍이룬 가승경치 홍화고을 물들이네.
年豐裕足農心樂	(연풍유족농심락)	연년대풍 유족하니 농부마음 즐겁이요,
節序風光筆遜收	(절서풍광필린수)	절서풍광 기경정사 필로건기 어려워라.



青山 黃光洙

한문서예



• 지도강사 : 함연호

• 수료자 :

김광식	김기송	김덕주	김동선	김성주	남경순	박상울
박순희	방기환	변대환	송진영	신동우	신성현	오경환
오국성	윤지환	이광우	이근천	이영관	장명한	전성우
전옥병	전진찬	최승호	최용일	최현식	홍의태	

大嶺雲初捲危巔雪未消
 羊腸山路險鳥道驛程遙
 老樹圍神廡晴煙接海嶠
 登高堪作賦風景使人撩

錄梅月堂先生大嶺嶺詩書松咸衍鎬

매월당선생 대관령시



지도강사 青松 咸衍鎬

繞屋扶疎松竹林間
 閑時聽語禽日長
 睡罷披經史不覺滿
 庭華雨深

錄楊月堂先生詩
 牛步金基松



매월당선생시



牛步 金基松

穩坐忘歸對水流樹
陰溪影別藏秋野禽
亦感賢侯德隔岸相
呼勸久留

錄松谷先生詩一首
峴泉金惠柱

운곡선생 시



峴泉 金惠柱

銀漢逢秋添皎潔
練波終夜更澄清
顚天挽向人間注
洗盡貪婪不義情

錄松谷先生詩一首
魯田朴商律

운곡선생 시



魯田 朴商律

破屋多相呼民逃吏亦苦每
 手加鞭瘡何日得歡娛田屬
 權豪宅門連暴虐徒子遺殊
 可惜辛苦竟何辜

錦松谷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운곡선생 시



忠岩 申東禹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侵晨理荒穢 帶月荷鋤歸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
 沾不足惜 但使願無違

錄陶淵明詩歸田園居曉泉申成鉉

도연명의 시

신 성 현

靜坐無爲萬慮忘湛
然空寂是真常這般
消息誰能說千頃澄
潭帶月光

錄耘谷先生詩一首
光亭吳庚煥

운곡선생 시



光亭 吳庚煥

左邊溪水右青山
 峴奇觀目不間
 洞草巖谷相映
 霞行裝如入
 畫圖間

錦耘谷先生詩一首
 裕哲尹智煥

운곡선생 시

褒成千狀眼
 步橫更作奇
 峰勢不平拖
 兩智雷翻霞
 頃漏星藏月
 步舒行

錦耘谷先生詩
 裕哲尹智煥

장봉역 길 위에서



裕哲 尹智煥

靜坐無爲萬慮忘
湛然空寂是真常
這般消息誰能說
千頃澄潭帶月光

松谷先生詩一首
松湖李光雨



운곡선생 시



松湖 李光雨

春陰不散鳴幽禽到
 多那堪客我吟指點
 奇觀頻舉日晴川芳
 草情難禁

錄耘谷先生詩一首
 春坡李根千



운곡선생 시



春坡 李 根 千

去路應從楓岳過長
 陽山色照淮波想
 信馬閑吟處鞭末清
 江漾碧羅

錄韋谷先生詩
 峴齋崔容一



운곡선생 시



峴齋 崔容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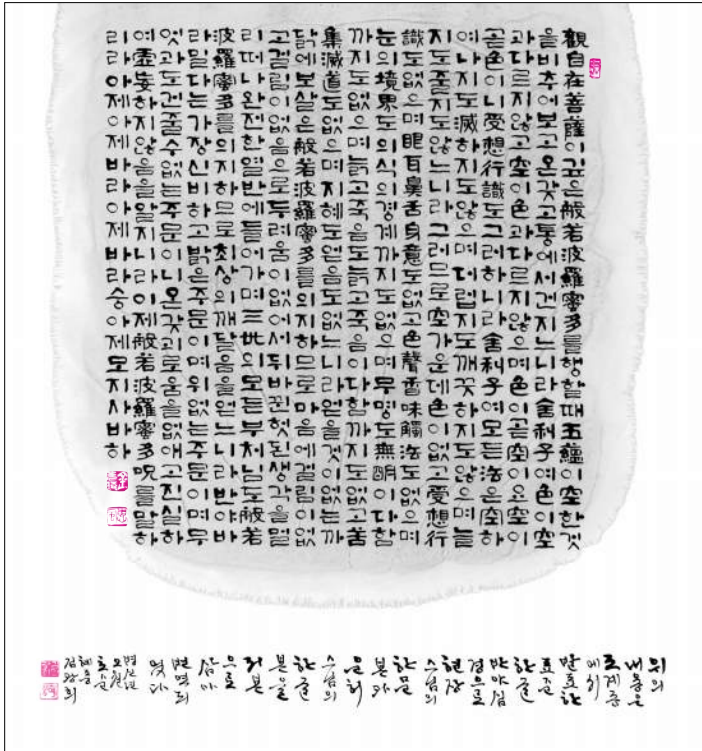
한글서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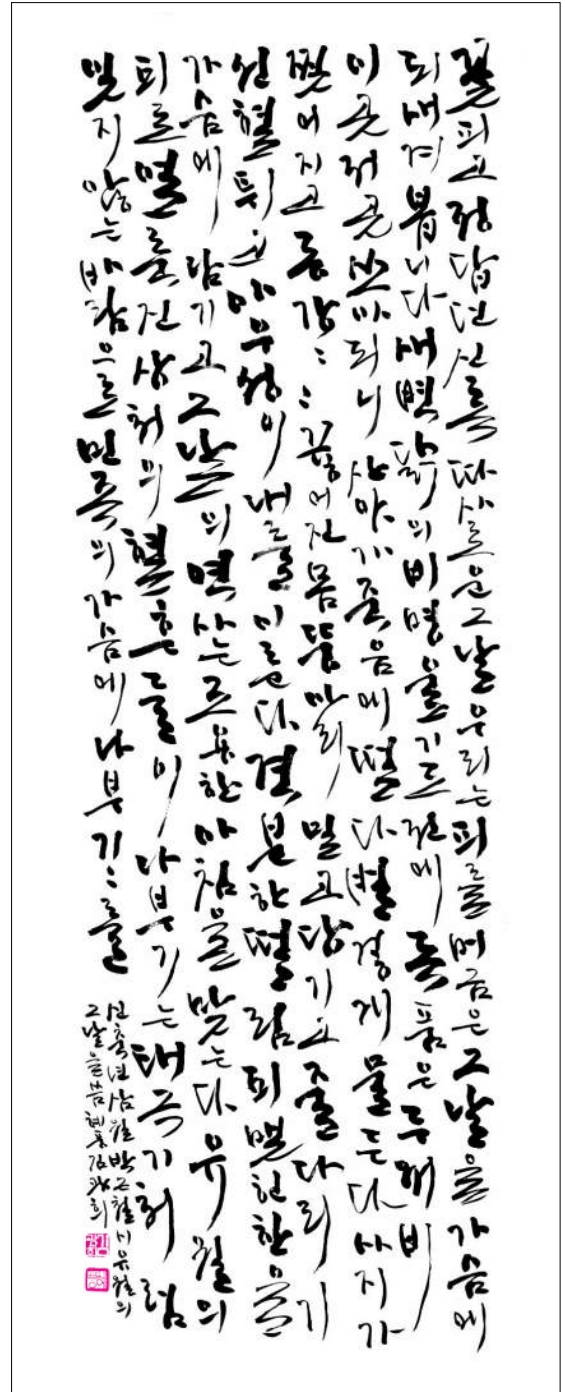
• 지도강사 : 김광희

• 수료자 :

김순자	김순희	김영순	김정열	김주희	노복현	로재창
박경숙	박상혁	심현순	양마루치	이기순	이두순	이주옥
이혜경	이효숙	장영랑	전선주	전성호	정창화	조일배
한상석	홍의태					



반아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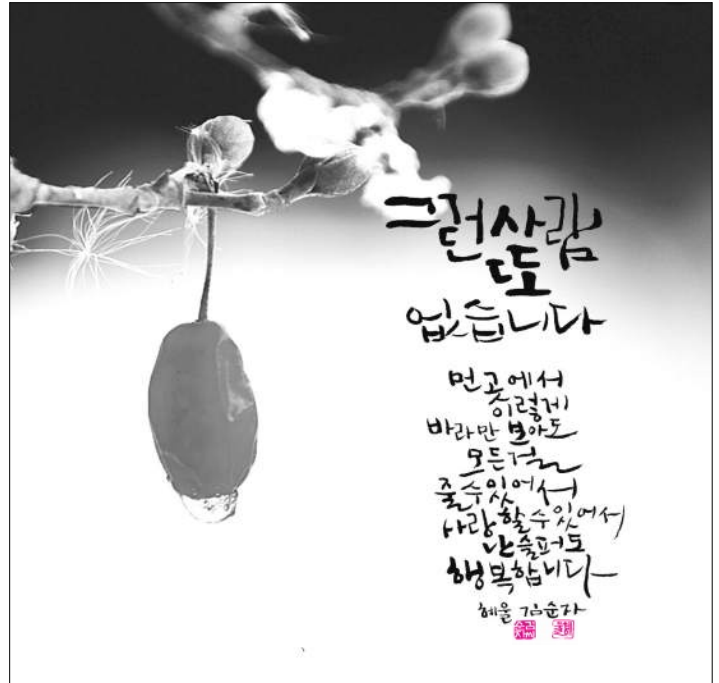
유월의 그날



지도강사 해풍 김 광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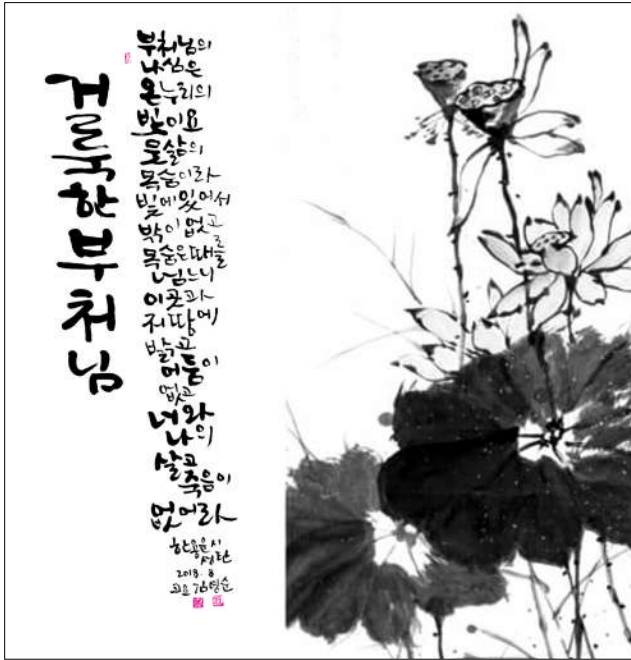
잠언16장18절-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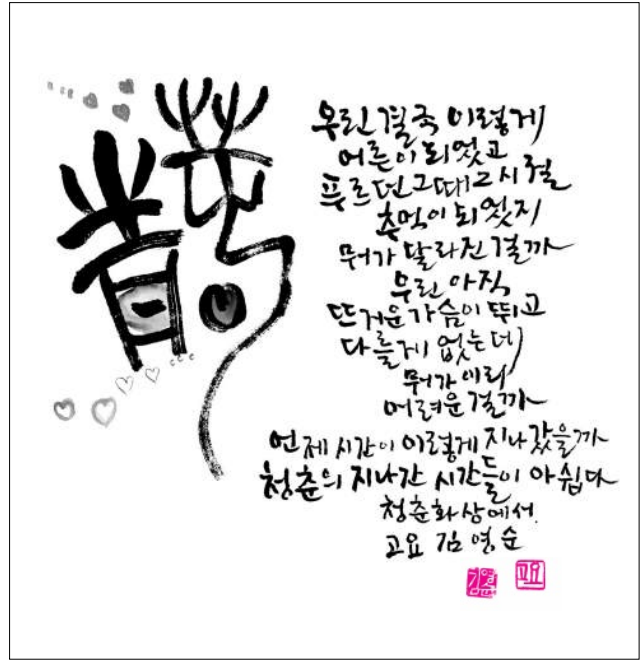
행복



혜을 김 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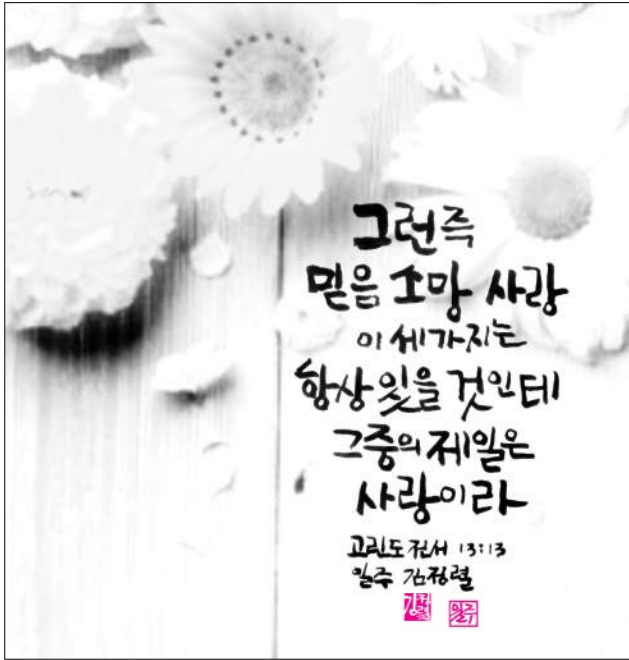
거룩한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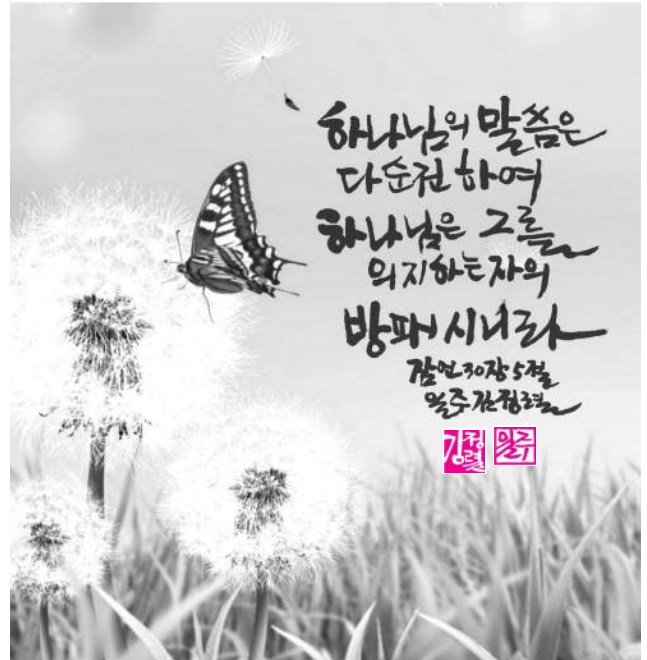
청춘화상에서



고요 김 영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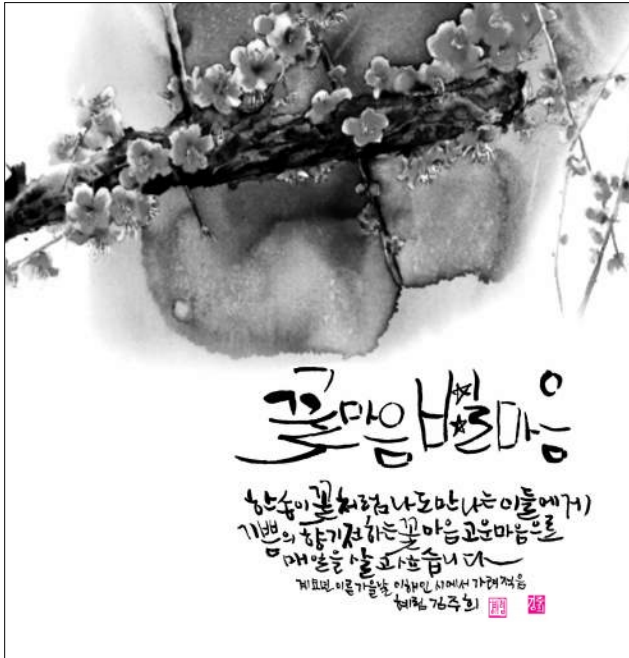
성경말씀



성경말씀



일주 김정렬



이해인 시



소중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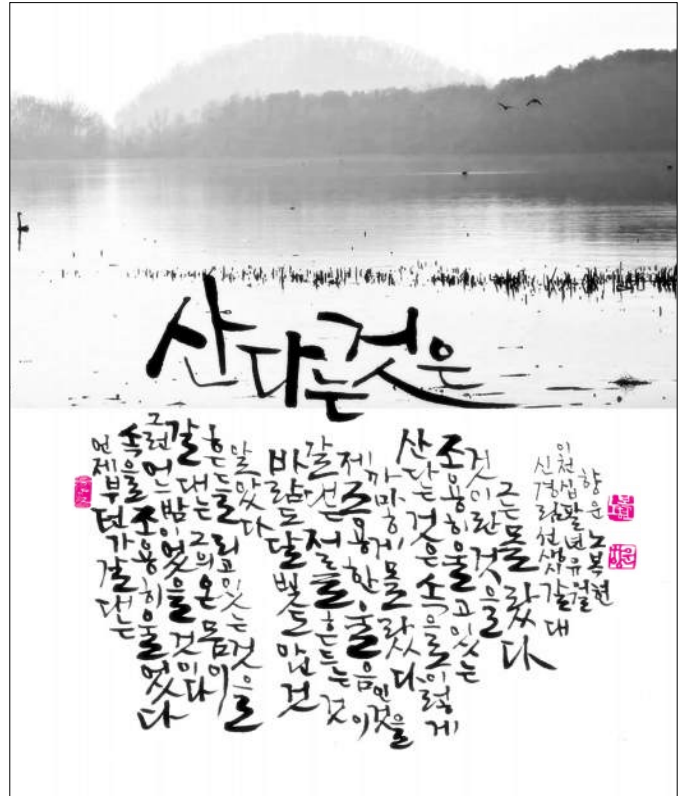


혜림 김 주 희

남을 헐뜯지 말고 노여움과 인색함
 배워 떠난 사람 마음에 맞거나 맞지 않
 거나 조금도 개의치 않는 사람 중 다 싫다
 줄 모두 버리고 어디에 드정착하지 않아
 모든 측박으로부터 헐뜯는 날이 가버
 린 사람 그는 이 세상 바깥 가장 바
 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말한 향운노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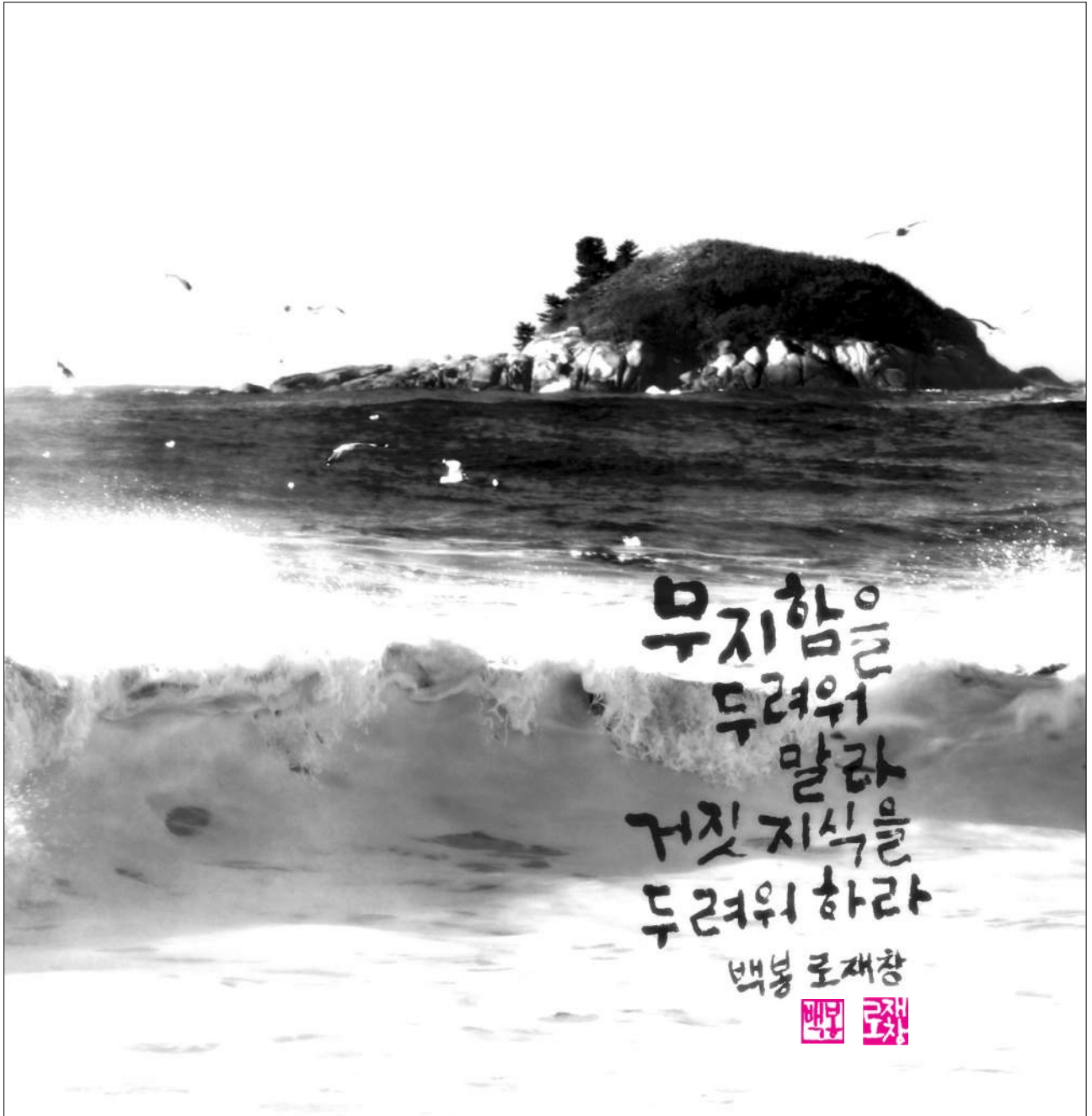
마음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산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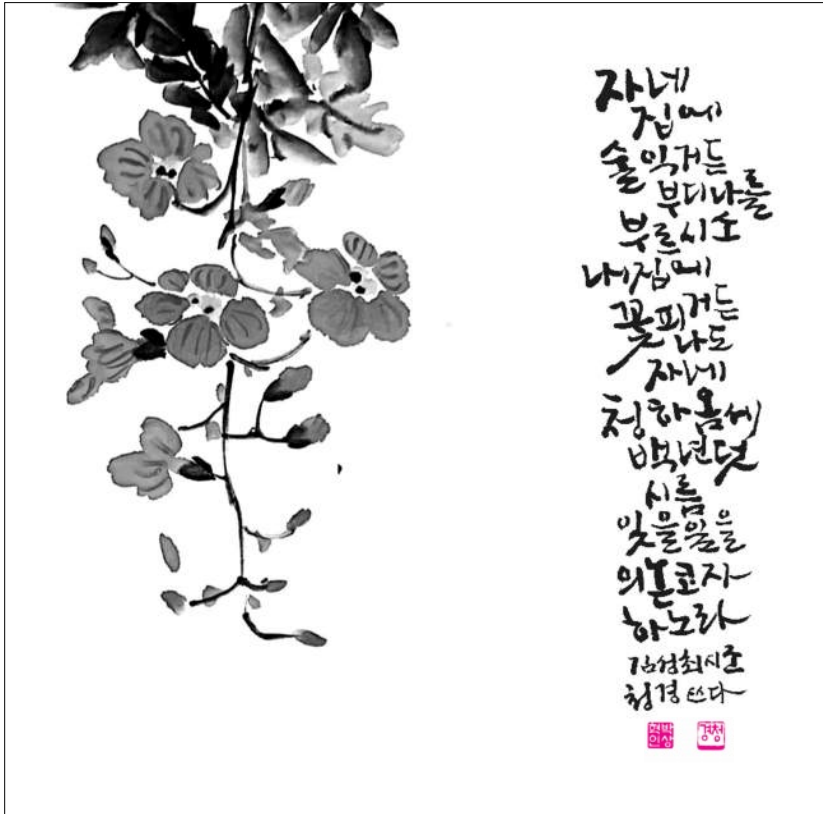
향운 노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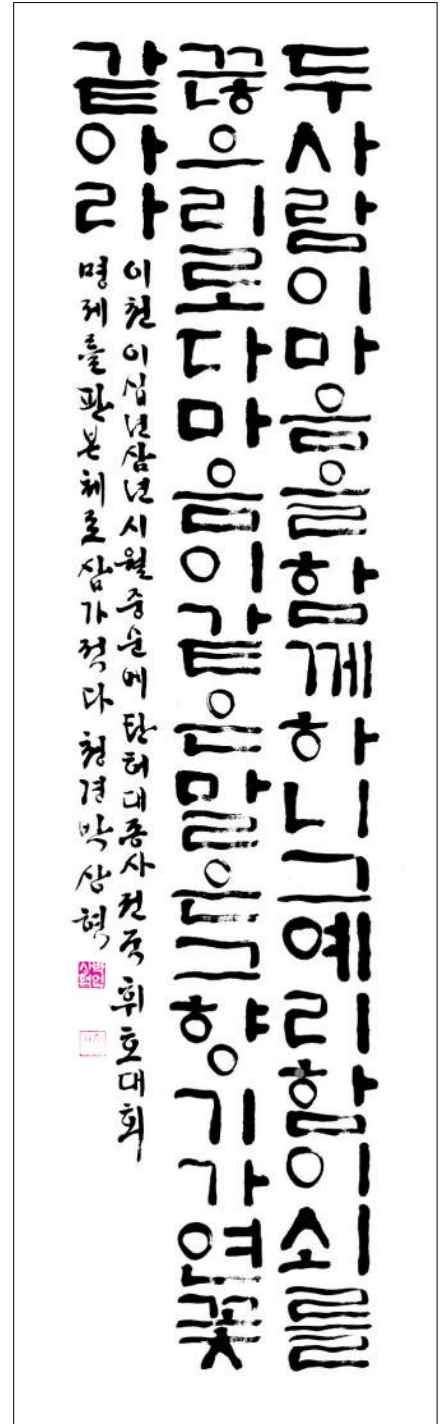
두려워말라



백봉 로재창



김성최의 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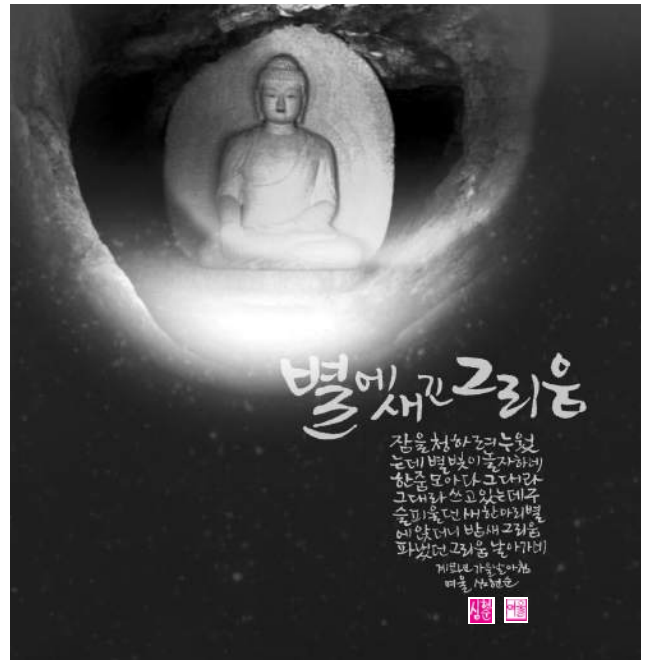
탄허스님말씀



청경 박 상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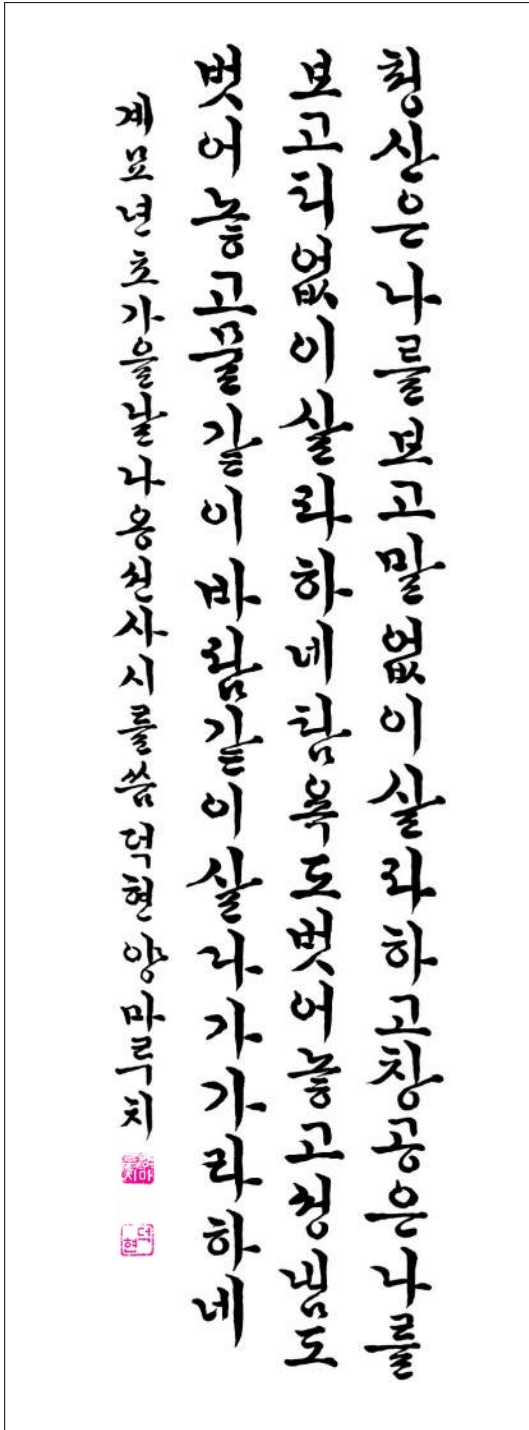
별에새긴 그리움



별에새긴 그리움



여울 심 현 순



나옹선사시



나의길



행복



덕현 양마루치



사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은별 이 기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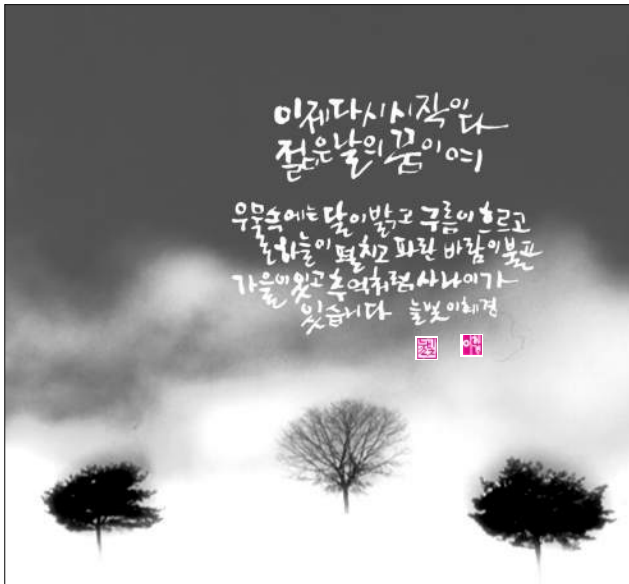
고린도전서13장에서



행복



참빛 이주옥



젊은날의 꿈



세상



늘빛 이혜경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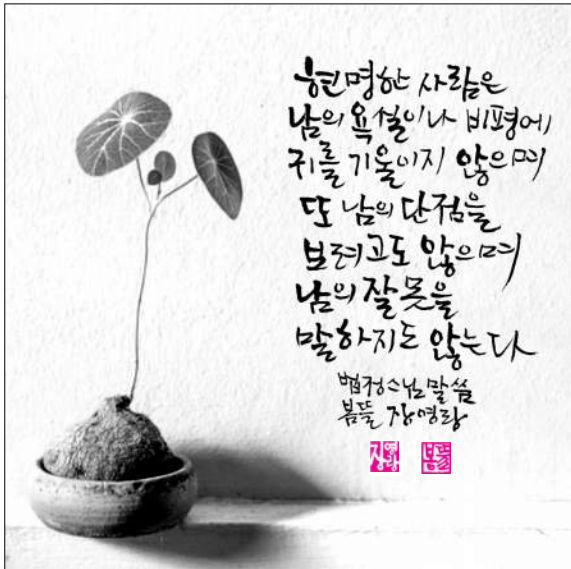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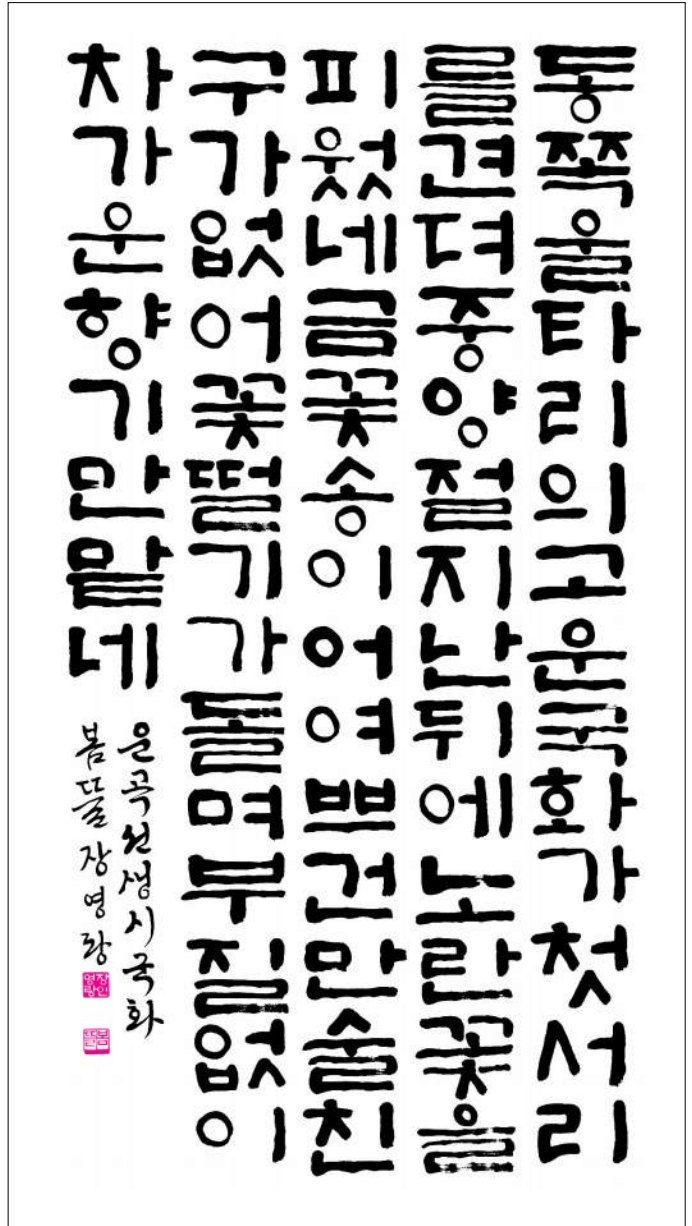
초심 이 효 숙



그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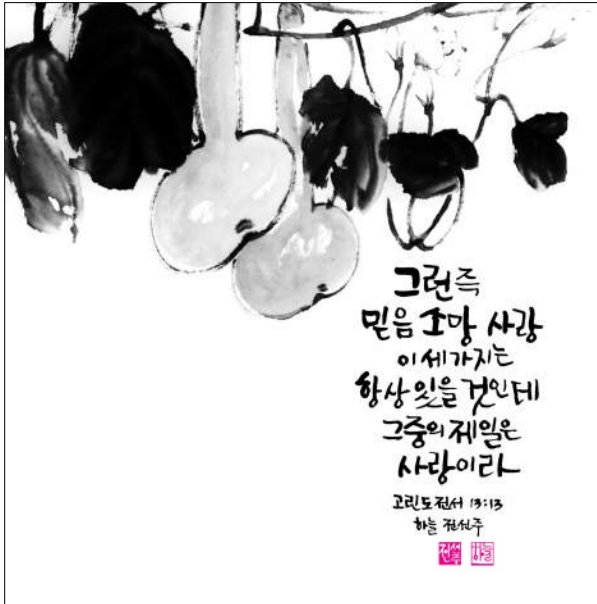
법정스님말씀



윤곡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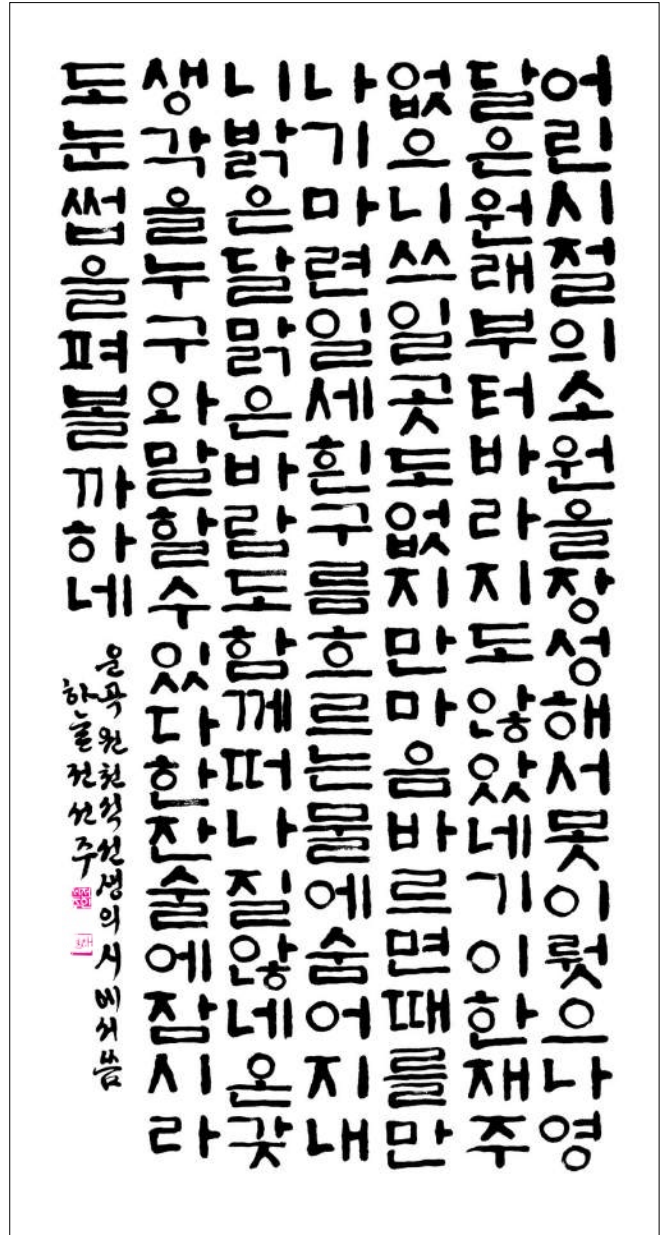
봄뜰 장영랑



믿음, 소망, 사랑



삼



원천석시



하늘 전 선 주



道



자유



운곡선생시

제이폴 전 성 호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를 동
시에 지닌 독특한 기후로 인하여 양자 강고 기
압과 함계 봄이 온고 북대평양 고기압이 온인
하여 여름이 온고 남해 고기압이 가을
을 부르므로 시베리아 고기압이 저압일 때 동풍이
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가 감사
해야 될 것입니다. 제 묘년 가을에 씀솔되조 일 배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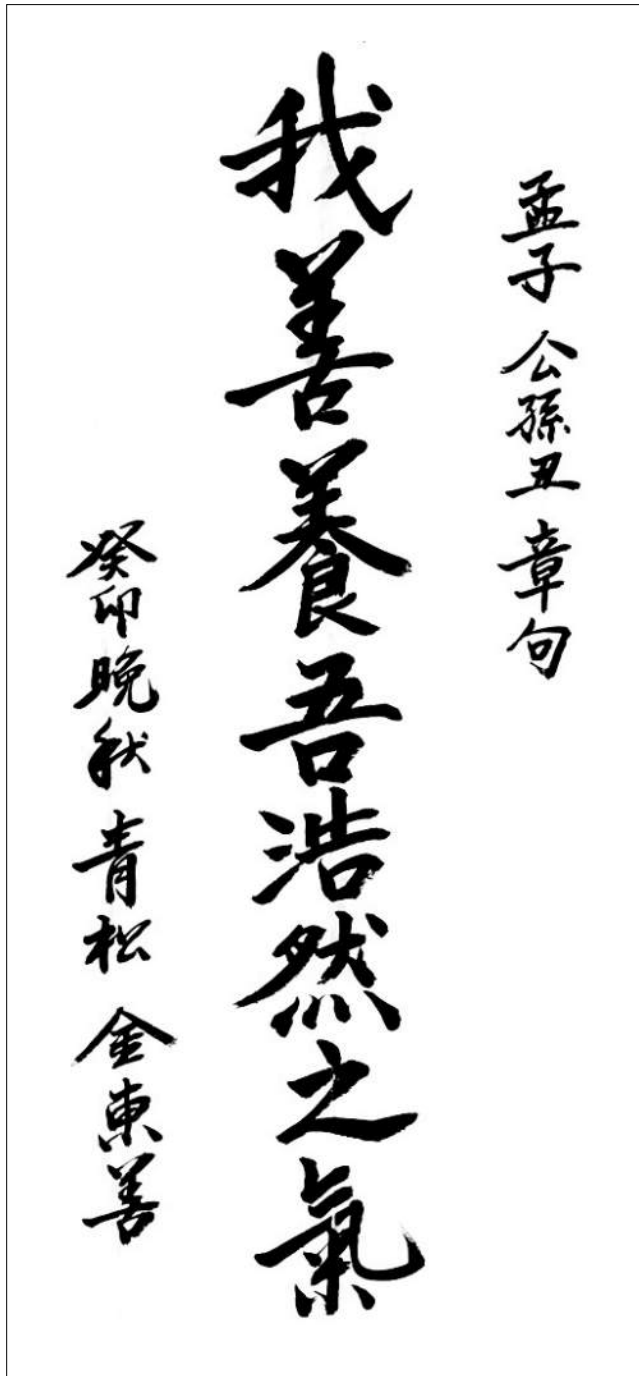
솔미 조 일 배

고전 교실



• 지도강사 : 최영택

• 수료자 : 김동선 김윤래 김철호 양마루치 이근천 전진찬
 한상호 홍창진



我善養吾 浩然之氣



青松 金東善

孟子善與人同

人告之以有過則喜

癸卯晚秋蒼波金允萊



人告之以有過則喜



蒼波 金允萊

尊德樂道

孟子 天下有達尊
活然 金詰鎬

尊德樂道



김철호

仁者無敵



孟子梁惠王章句上篇 癸卯晚秋 南岡 梁東昌



孟子梁惠王章句上篇 仁者無敵



양 동 창

惻隱之心 羞惡之心 辭讓之心
是非之心 仁義禮智 止四端也

癸卯秋日 孟子性善說中 養南



성선설(한문)

남은물상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릇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에서
義가 비릇되고 辭讓하는 마음에서
禮가 비릇되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에서
智가 비릇된다

맹자성말씀이기에
덕현양마루치



성선설(한글)



양마루치



맹자구



春坡 李 根 千



낙천자보천하



전 진 찬



불명현 불주



청해헌 한 상 호



强爲善而已矣



홍 창 진

수채화 교실



• 지도강사 : 김영덕

• 수료자 : 권기복 김두원 김미동 김민경 김영희 박순남 스즈끼나호코
 심정순 심정희 아다찌에리 양신자 오은영 오은영 우정임
 유철호 윤월자 윤현숙 이도우 전인경 주화진 주효영
 최지연 홍영희



세월에 흔적



지도강사 김 영 덕



매월당선생시



권 기 복



가을이야기



김 두 원



일편단심



김 미 동



기다림



김민경



도시의 풍경



김영희



정물화



박 순 남



겨울속으로



스즈끼 나호코



눈속에 묻힌 얼굴



심 정 순



눈속에 묻힌얼굴



심정희



나비사랑



아다찌에리



시골풍경



양 신 자



겨울나기



오 은 영



농촌가을풍경



우 정 임



멍멍이가족



유 철 호



풍경있는 마을



윤 원 자



겨울준비



윤 현 숙



시골풍경



이 도 우



겨울왕국



전 인 경



오후 정원



주 화 진



모정



주 효 영



숲속풍경



최지연



천년의세월



홍영희

한국화 교실



• 지도강사 : 조정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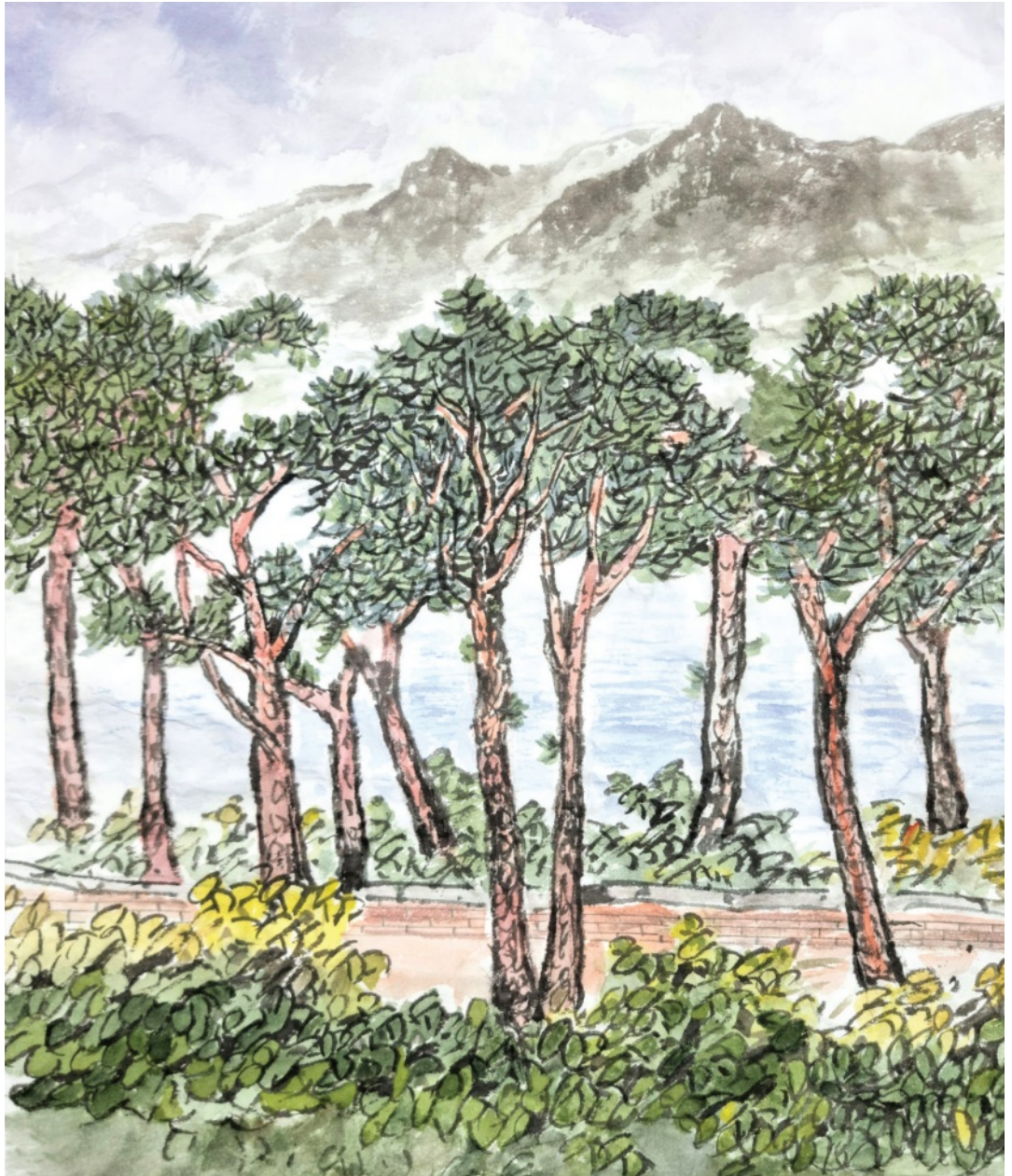
• 수료자 : 김민심 김순희 김영미 박광애 박문희 변대환 송화훈
 신동우 양신자 어정수 유철호 윤길중 윤춘목 이경숙
 이근천 이상순 최소부 최종봉 황문복



범바위의 봄날 (속초2경, 114x114, 장지, 수묵담채, 2023)



지도강사 조 정 승



화진포의 여름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김민심



속초 조도소견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소화 김 영 미



오색 성국사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하정 박 광 애



가을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소해 박 문 희



성하의 백운대 인수봉 (한지, 수묵담채, 40호, 2023)



금아 변 대 환



장미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송 화 훈



봄날-산수유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충암 신 동 우



봄날의 추억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양 신 자



향리의 봄 (한지, 수묵담채, 20호, 2023)



예향 어정수



설악산 공룡능선 (한지, 수묵담채, 2023)



예산 유철호



청간정 소견 (한지, 수묵담채, 40호, 2023)



북양 윤길중



노송과 호수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현산 윤 춘 목



설악 운해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춘파 이근천



포도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이 상 순



수선화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청산 최 소 부



설악의 겨울 (한지, 수묵담채, 10호, 2023)



원재 최 종 봉



산사 가는길 (한지, 수묵담채, 15호, 2023)



석화 황 문 복

민화 교실



• 지도강사 : 정복자

• 수료자 : 고민숙 김경희 김금희 김순이 방기환 양영철 오은영
이영주 장영랑 천미랑 최현식 홍순혜



황룡도



지도강사 정복자



참새와 대나무



고민숙



화조도



김 경 희



모란도



김 경 희



화조도



김 순 이



연화도



방 기 환



일월오봉도



양 영 철



장생도



오 은 영



해응영일도



이 영 주



호접도



장영랑



소과도 삼층장



천 미 랑



책가도



최현식



화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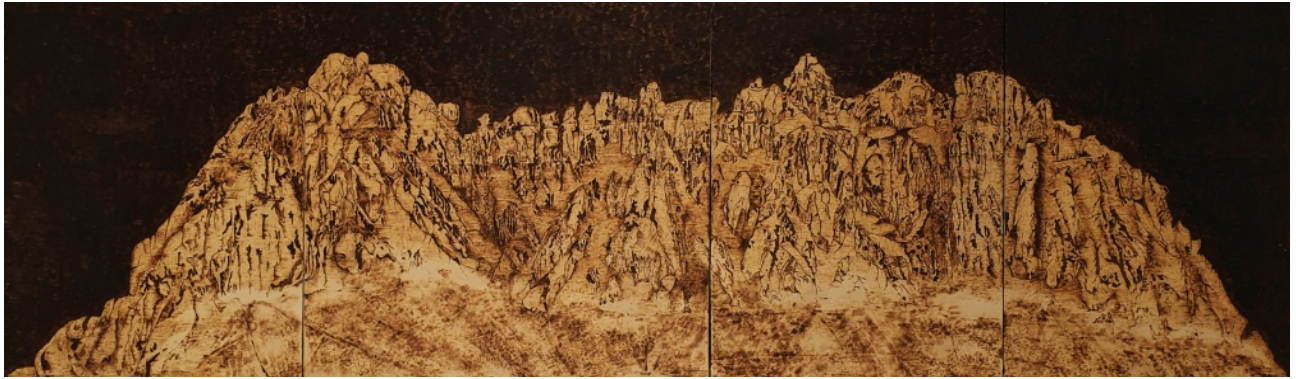
홍 순 혜

인두화(우드버닝)



• 지도강사 : 조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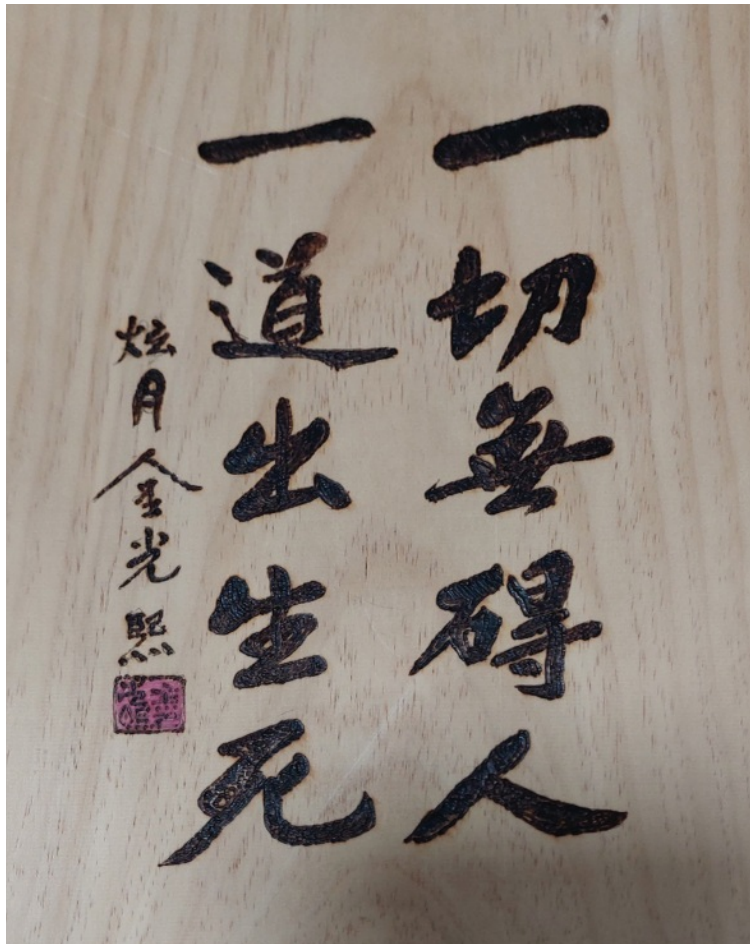
• 수료자 : 김광희 김미동 남기란 신동빈 양영철 유석진 유철호
윤성현 이기순 이은봉 조현숙 홍춘기



다양한 형상이 모여 생긴 울산바위



지도강사 윤정 조혜성



일체무애인일도 출생사



김 광 희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김 미 동



이삭줍기



남 기 란



호랑이



신 동 빈



활짝핀 꽃



양 영 철



비너스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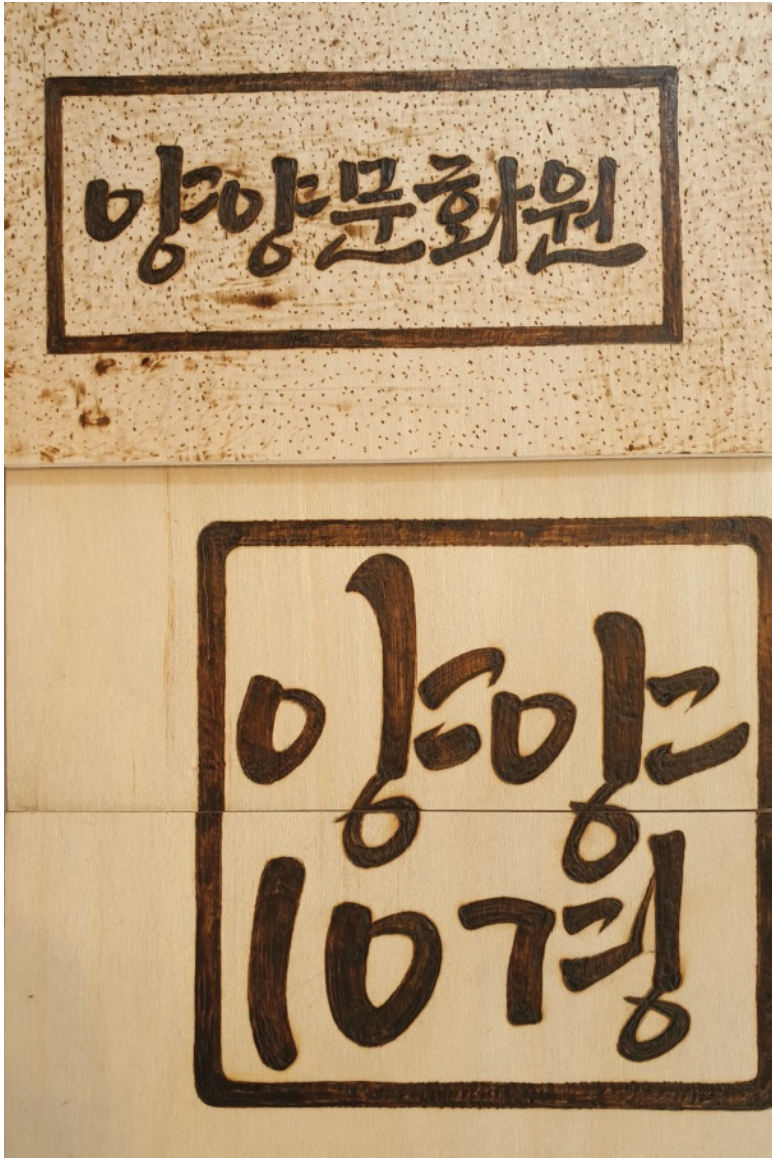
유 석 진



최후의 만찬



유 철 호



캘리그래피



윤 다 영



단오풍정



이 기 순



생활소품



이 은 봉



자작나무



조 현 숙



김홍도 대장간



홍 춘 기

2023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발행일 : 2023년 11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